

# 한-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



Global  
Market  
Report

# 목 차

## 요약

### I. 한-중미 FTA 개요 / 1

- |   |          |
|---|----------|
| 1 | 1. 진행 경과 |
| 3 | 2. 주요 내용 |

### II. 중미시장 개요 및 기회 요인 / 4

- |   |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|
| 4 | 1. 참여국 개요         |
| 5 | 2. 중미시장 특성과 기회 요인 |

### III. 한-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국별 수출 유망품목 / 7

- |    |          |
|----|----------|
| 7  | 1. 코스타리카 |
| 14 | 2. 엘살바도르 |
| 24 | 3. 온두라스  |
| 30 | 4. 니카라과  |
| 35 | 5. 파나마   |

### IV. 결론 및 시사점 / 41

## 요 약

### □ 한-중미 FTA 개요

- 한-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자 중미 5개국과 동시에 체결한 최초의 FTA로 파나마의 발효로 전체발효(‘21.3.1일).
- \* 니카라과 온두라스(‘19.10.1일), 코스타리카(‘19.11.1일), 엘살바도르(‘20.1.1일), 파나마(‘21.3.1일) 발효
- 북미-남미지역을 연결하는 미주지역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으며, 양측의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로 교역 확대 및 투자 활성화 기대
- 우리의 중미 신시장 개척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, 중미의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 마련 계기

### □ 한-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
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산 자동차부품(타이어, 배터리 등 포함), 화장품, 음료, 의약품의 對중미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

| 유망품목  | 유망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지 바이어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동차부품 | 코스타리카<br>엘살바도르<br>온두라스<br>니카라과<br>파나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산 자동차부품 품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</li> <li>- 한-중미 FTA를 통해 우수한 업체의 진출이 증가해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거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.</li> <li>- 한-중미 FTA 관세 인하 즉시 판매가 급증하지 않더라도 가격 인하에 따라 장기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 예상</li> </ul>          |
| 화장품   | 엘살바도르<br>온두라스<br>니카라과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증가로 스킨케어에 대한 중미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. SNS,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K-뷰티가 중미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전파</li> <li>- 한국산 화장품은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, 신선한 패키징 등이 강점</li> <li>- 한-중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한국산 화장품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</li> </ul>         |
| 음료    | 엘살바도르<br>파나마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산층 확대에 따라 과일·건강음료 위주로 시장 다변화</li> <li>- 한-중미 FTA의 관세 인하 효과 기대(파나마 알로에음료 발효즉시 무관세)</li> <li>- 현지에 도입되지 않은 신개념 음료(비타민음료, 숙취해소음료 등)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약품   | 코스타리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수출 상위품목으로 공공 의료부문의 의약품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입찰 기회 다수</li> <li>- 코로나19 이후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 요소</li> <li>- 의약품의 관세가 비교적 낮은 편이나 한-중미 FTA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</li> </ul> |

### □ 결론 및 시사점

-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하는 중미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파악하여 중미시장 공략
- 개별국 보다 중미 통합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파나마에 물류거점을 구축하거나 중미 전역에 유통망을 구축한 기업을 활용하는 전략 마련
- 우리나라가 가입한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회원국 우대정책을 활용하여 중미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 확대 방안 모색

## I

## 한-중미 FTA 개요

## 1

## 진행 경과

## □ 의의

- 한-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로 중미 5개국과 동시에 체결한 최초의 FTA
- 북미지역\*과 남미지역\*\*을 연결하는 미주지역 FTA 네트워크 완성
  - \* 한-미 FTA('12년 발효), 한-캐나다 FTA('15년 발효)
  - \*\* 한-칠레 FTA('04년 발효), 한-페루 FTA('11년 발효), 한-콜롬비아 FTA('16년 발효)
- 양측의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로 교역 확대 및 투자 활성화 기대
  - 우리의 중미 신시장 개척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, 중미의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 마련 계기

## □ 협상 경과

- 한-중미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-중미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('15.6월)
  - 최초 협상 당시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파나마, 과테말라 중미 6개국과 협상 논의
- 총 제7차례 협상('15.9월~'16.10월)을 통해 실질타결 합의('16.11.16일)
  -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및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타결
-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 한-중미 FTA 가서명('17.3.10일)
  - 과테말라는 중미 내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로 자국 업계간 조율의 어려움, 가서명 시한 압박 등으로 추후 가입 입장 표명
- 한-중미 FTA 정식서명('18.2.21일)

## □ 발효 현황

- \*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 1일 발효
- 자국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우리측에 통보한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와 우선 발효('19.10.1일)
- 이후 코스타리카('19.11.1일) 및 엘살바도르('20.1.1일) 발효
- 파나마 발효로 한-중미 FTA 전체발효('21.3.1일)

### < 한-중미 FTA 협상 주요 경과 >

| 구분<br>(일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참여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협상 개시</b><br>( '15.6.18일)        | 한-중미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-중미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[중미 6개국]</b><br><br>코스타리카<br>엘살바도르<br>온두라스<br>니카라과<br>파나마<br>과테말라 |
| <b>제1차 공식협상</b><br>( '15.9.21-25일)  | 상품, 무역구제, 원산지, 통관, 정부조달, 협력, 무역기술장벽(TBT), 위생 및 검역 조치(SPS), 총칙 등 15개 챕터 주요 내용 논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2차 공식협상</b><br>( '15.11.23-27일) | 서비스·투자, 금융, 통신,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3차 공식협상</b><br>( '16.2.22-26일)  | 기존 협의 가속화 및 노동·환경 챕터에 대한 논의 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4차 공식협상</b><br>( '16.5.23-27일)  | 한국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시장개방, 서비스·투자 자유화, 정부조달 진출 등 협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5차 공식협상</b><br>( '16.8.8-12일)   | 중미 6개국과 개별 양자협의 실시 및 국별 민감도·관심도 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6차 공식협상</b><br>( '16.9.26-30일)  | 협정문 주요 쟁점별 최종 타결방안 모색 및 중미 각국의 민감도·관심도를 고려한 시장개방 협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7차 공식협상</b><br>( '16.10.24-31일) | 협상 타결을 위해 국별 민감도·관심도를 고려하여 협상 진행 주요 분야에 대한 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실질타결 합의</b><br>( '16.11.16일)     |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파나마는 24개 챕터에 합의. 과테말라는 시장접근,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타결   | <b>[중미 5개국]</b><br><br>코스타리카<br>엘살바도르<br>온두라스<br>니카라과<br>파나마         |
| <b>가서명</b><br>( '17.3.10일)          |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 가서명 완료<br>* 과테말라는 자국 업계간 조율의 어려움, 가서명 시한 압박 등으로 추후 가입 입장 표명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정식서명</b><br>( '18.2.21일)         | 한-중미 FTA 정식서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부분발효</b><br>( '19.10.1일~)        |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 발효('19.10.1일)<br>코스타리카 발효('19.11.1일)<br>엘살바도르 발효('20.1.1일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전체발효</b><br>( '21.3.1일~)         | 파나마 발효로 한-중미 FTA 전체발효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자료원 : 산업부 보도자료

## 2 주요 내용

### □ 상품

- 양측은 전체 품목수 95%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 약속
- (우리측 개방) 품목수 기준 95.5~95.9%, 수입액 기준 98.7~100% 개방
  - 민감 농수산물(쌀·고추 등) 관련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로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

| 기준  | 對코스타리카 | 對엘살바도르 | 對온두라스 | 對니카라과  | 對파나마 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품목수 | 95.6%  | 95.5%  | 95.5% | 95.9%  | 95.6% |
| 수입액 | 100.0% | 100.0% | 98.7% | 100.0% | 99.5% |

- (중미측 개방) 품목수 기준 95.1~95.9%, 수입액 기준 93.2~99.3% 개방
  - 자동차, 철강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, 의약품, 알로에 음료, 섬유,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도 개방

| 기준  | 코스타리카 | 엘살바도르 | 온두라스  | 니카라과  | 파나마  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품목수 | 95.2% | 95.1% | 95.6% | 95.9% | 95.3% |
| 수입액 | 98.0% | 98.1% | 93.2% | 99.1% | 99.3% |

### □ 서비스 및 투자

-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\*으로 자유화하고, 통신, 유통, 건설 등 우리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강화
  - \*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개방
- 체계적인 투자자-국가간 소송(ISD) 도입, 투자 기업들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

### □ 기타

- WTO 정부조달협정(GPA)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개방
- 비관세장벽 제거, 원산지·통관 기준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합의, 지재권 보호도 강화

## II

## 중미시장 개요 및 기회 요인

### 1

### 참여국 개요

#### □ 경제 규모

- 중미 5개국의 GDP 총 합은 1,806억 달러로 중남미 7번째 경제 규모로 파나마, 코스타리카 2개국이 중미 전체 GDP의 66%를 차지. 1인당 GDP는 평균 6,757 달러 수준이나 국별 편차가 큰 편

\* 경제 규모('20년) : 브라질, 멕시코,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, 칠레, 페루, 중미 순

- 중미 5개국의 개별국 인구는 천만 명 미만의 소국이나 전체 인구는 3,233만 명으로 중남미 6번째 규모

\* 인구 규모('20년) : 브라질, 멕시코, 콜롬비아, 아르헨티나, 페루, 중미 순

#### < 중미 5개국 주요 경제지표 ('20년 기준) 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코스타리카  | 엘살바도르  | 온두라스   | 니카라과   | 파나마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GDP (백만 달러)             | 59,645 | 24,784 | 23,984 | 11,905 | 60,286 |
| 1인당 GDP (달러)            | 11,629 | 3,821  | 2,412  | 1,832  | 14,090 |
| 인구 (천 명)                | 5,129  | 6,486  | 9,942  | 6,496  | 4,279  |
| 경제성장률 (%) <sup>1)</sup> | -5.5   | -9.0   | -6.6   | -5.5   | -9.0   |

\* 자료원 : IMF WEO ('20.10월 발표)

\* 주 : 1) 경제성장률은 예측치

#### □ 교역 동향

- '19년 기준, 중미 5개국의 교역액은 840억 달러, 중미 5개국간 역내 교역액은 100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12% 차지

- 對韓 교역액은 13억 달러로 파나마, 코스타리카가 절반 이상을 차지

#### < 중미 5개국 교역 동향 ('19년 기준) >

(단위: 백만 달러, 비중)

| 구분        | 코스타리카  | 엘살바도르  | 온두라스   | 니카라과<br>( '18년 기준) | 파나마<br>( '17.9월 기준) | 중미5개국<br>총 합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對세계 교역액   | 28,102 | 17,961 | 12,592 | 12,364             | 13,016              | 84,035       |
| 중미 역내 교역액 | 2,587  | 3,307  | 1,417  | 2,055              | 729                 | 10,095       |
| 對한국 교역액   | 339    | 264    | 115    | 150                | 459                 | 1,327        |
| 對한국 수출액   | 55     | 32     | 31     | 15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| 141          |
| 對한국 수입액   | 284    | 232    | 84     | 135                | 451                 | 1,186       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

\* 주 : 니카라과는 2018년 통계, 파나마는 2017.1~9월 통계가 최신 자료

## 2 중미시장 특성과 기회 요인

### □ 중미시장 특성

- 중미 5개국은 개별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치·경제·문화적 통합을 꾀하며 중미지역 경제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.
  - (중미통합체제(SICA)) 대외 공동관세를 채택하고 역내 생산재화에 대해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등 경제 통합체제를 위한 발판 마련
    - \* '93년 창설.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파나마, 과테말라 참여
  - (과테말라-온두라스 관세동맹) '17.6월 발효, '18.8월 엘살바도르 가입 완료. 장기적으로 관세동맹으로 발전할 전망
  - (중미경제통합사무국(SIECA)) '19.5월 6개국 공동 세관수출신고 온라인 플랫폼인 DUCA를 구축. 3종의 수출입신고를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하며 무역 원활화 추진
    - \* '61년 발효.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파나마, 과테말라 참여
-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며 경제 블록을 형성 중
  - (중미 5개국) 미국-도미니카공화국, 칠레, 멕시코 등
  - (엘살바도르·온두라스) 콜롬비아, 대만
  - (코스타리카·파나마) 유럽자유무역연합(EFTA)

### □ 기회 요인

-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견고한 경제성장이 이어질 전망
  - (코스타리카) OECD 가입을 위한 통화정책 개혁, 규제 완화, 투자 및 관광 산업 회복에 힘입어 올해 2.3%의 경제성장 전망(세계은행)
  - (엘살바도르) 작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경제 성장이 부진했으나 대내외 요인\* 개선으로 올해는 성장세로 전환 예상
    - \* 건설(쇼핑몰, 주거단지)·통신 인프라 분야의 민간투자, 도로 인프라 투자 기대

- (온두라스) 정부 주도의 거시경제 개선 및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중.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올해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기록할 전망
  - (니카라과) 내수 활성화, 투자와 개인 소비 증가, 수출 증가(농산물, 식료품 등), 해외송금 회복으로 올해 1.1% 경제성장 전망(세계은행, CEPAL)
  - (파나마) 내수 소비 회복, 인프라 투자 확대, 건설업 및 광업 호조, 운하 관련 물류·운송 서비스 증가로 올해 4% 경제성장 전망(세계은행)
-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정회원국 가입에 따른 유리한 조건 확보
-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은 중미지역 다자 개발은행으로서 우리나라는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회원국으로 정식 승인('20.1월)
    - \* 우리나라는 회원가입을 위해 총 6.3억 달러의 자본금을 납입하며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지분의 7.67% 보유. 역외 회원국 중 대만(11.48%) 다음으로 높은 지분율 보유
  -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은 개별 국가 차원의 인프라 프로젝트 뿐 아니라 중미 전체를 관통하는 지역 개발 프로젝트(전력망, 철도 인프라 등)도 추진하며, 세계은행이나 미주개발은행(IDB) 보다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
  -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은 회원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기업이 중미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

## Ⅲ

## 한-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국별 수출 유망품목

## 1

## 코스타리카

## 가. 자동차부품 및 승용차 배터리 (HS 8507.10, 8708)

## □ 시장 환경

- 중고차가 자동차 판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강하나, 최근 신차 판매가 중고차 판매를 추월한 상황
- 한국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높은 품질 경쟁력으로 인한 인지도 제고로 최근 5년간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완성차 및 부품 수요 급상승
  - \*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한국산이 일본산을 능가하는 빈도 증가

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자동차부품 및 배터리 수입은 미국(22.5%), 멕시코(17.2%), 일본(16.4%), 중국(14.4%), 한국(3.2%) 순으로 한국은 상위권을 차지
  - 자동차부품(HS 8708)은 미국(27.4%), 중국(17.4%), 멕시코(3.4%)산이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, 한국(3.0%)은 점유율 4위
  - 배터리(HS 8507.10)는 멕시코(56%), 미국(8.5%)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, 한국산은 3.6%의 점유율로 5위 차지
- (對한국)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자동차부품 및 배터리 수출은 '15년 이후 감소 추세

## &lt; 코스타리카의 자동차부품 수입 현황 &gt;

(단위 : 백만 달러)

| 순위 | 국가 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  | 미국  | 22.5  | 27.6  | 24.0  | 24.6  | 24.8  |
| 2  | 멕시코 | 18.8  | 17.3  | 18.2  | 18.8  | 19.0  |
| 3  | 일본  | 21.7  | 23.2  | 20.1  | 18.8  | 18.1  |
| 4  | 중국  | 13.5  | 15.9  | 15.4  | 15.1  | 15.9  |
| 5  | 한국  | 9.8   | 6.1   | 5.9   | 4.3   | 3.5   |
|    | 총 합 | 113.8 | 121.3 | 117.6 | 114.5 | 110.2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Code 8507.10, 8708 합산 기준)

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허 유형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8507.10.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즉시 철폐  | 15%   |
| 8708.21.00/80.20/92.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철폐 | 10%   |
| 8708.30.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즉시 철폐  | 0%    |
| 8708.29.10/80.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즉시 철폐  | 1%    |
| 8708.10.00/29.90/30.10/30.90/40.10/40.20/50.10/50.20/<br>50.90/70.00/80.19/80.90/91.10/91.20/92.10/94.10/94.20/<br>95.00/99.00 | 즉시 철폐  | 10%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중미 국가 중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으로 꾸준한 소득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자동차 수요 견조
- 한국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상승세 지속
  - 코스타리카 내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 약 60%로 1위 유지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현지 한국산 차량 점유율은 약 60%이며 다른 차종에 비해 한국산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
  - 한국산 부품에 대한 평판과 인지도는 대체로 긍정적
  - 차량용 배터리의 경우 한국산의 우수한 품질 수준이 잘 알려져 있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한-중미 FTA를 통해 우수한 제조업체의 진출이 증가해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거래 기회가 확대되고, 파트너 선택의 폭이 다양해짐에 따라 양국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큼.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미국과 같이 수입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, 적극적인 사후관리(AS) 정책 및 유연한 단가협상 등의 대비책 수립 필요

---

### 나. 타이어 및 재생타이어 (HS 4011, 4012)

---

## □ 시장 환경

- 중고 자동차가 자동차 판매시장의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강했으나, 최근 신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타이어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
  - \* 신차 대상 은행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및 중고차 대상 규제 강화 영향
- 코스타리카 내 제조 및 생산시설이 전무하여 타이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
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타이어 수입은 중국(59%), 미국(7.5%), 브라질(4.2%), 멕시코(4.1%), 태국(3.9%) 순으로 한국(1.8%)은 9위를 차지
  - 새 타이어(HS 4011)의 경우 중국이 63%의 독보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큰 격차를 두고 한국(1.9%)이 9위를 차지
  - 중고·재생타이어(HS 4012)는 멕시코(40%)와 미국(34%)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형성, 한국(1.6%)은 9위를 차지
- (對한국)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타이어 수출은 '15년 이후 감소 추세

### < 코스타리카의 타이어 수입 현황 >

(단위 : 백만 달러)

| 순위 | 국가 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  | 중국  | 46.2  | 46.1  | 43.8  | 50.5  | 49.1  |
| 2  | 미국  | 9.3   | 6.4   | 6.1   | 5.7   | 6.2   |
| 3  | 브라질 | 3.3   | 5.3   | 4.6   | 4.3   | 3.5   |
| 4  | 멕시코 | 5.6   | 4.9   | 4.3   | 3.3   | 3.4   |
| 5  | 태국  | 3.2   | 2.1   | 2.1   | 2.5   | 3.2   |
| 9  | 한국  | 6.5   | 5.2   | 5.6   | 4.2   | 1.5   |
|    | 총 합 | 95.2  | 87.5  | 83.3  | 88.2  | 82.2 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4011, 4012 합산 기준)

#### 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| 양허 유형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4011.10.00 | 양허 제외  | 10%   |
| 4011.20.10 | 10년 철폐 | 6%    |
| 4011.20.90 | 양허 제외  | 10%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중미 국가 중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으로 꾸준한 소득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자동차 수요 견조
- 한국산 등 아시아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상승세 지속

##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현지 한국산 차량 점유율은 약 60%(일본 30%, 미국산 10%)이며 다른 차종에 비해 한국산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
  - 한국산 부품에 대한 평판과 인지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며, 타 국가 공급처와 비교 시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 사항은 특별히 없음.
  - 타이어의 경우 신차, 중고차, 중고버스 등 다양한 차종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나 중국산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
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한-중미 FTA를 통해 우수한 업체의 진출이 증가해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거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미국과 같이 수입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, 적극적인 사후관리(AS) 정책 및 유연한 단가협상 등의 대비책 수립 필요
- 현지에서 FTA 관련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필요

---

## 다. 의약품 (HS 3003, 3004)

---

## □ 시장 환경

- 코스타리카 의약품 수입시장은 중미 내 최대 규모로 소득 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지속
  - 정부 차원의 공공 의약품 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 성장할 전망

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코스타리카 의약품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0.5%로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.
  - 전통적으로 독일 등 유럽에 편중된 시장이나 최근 인도, 중국 의약품의 수입비중이 급격히 증가
  - 원료의약품(HS 3003)의 경우 인도가 50%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
  - 완제의약품(HS 3004)은 멕시코(12%), 독일(7%), 스페인(6.5%), 스위스(6.2%)산이 시장의 31.7%를 형성

- (對한국)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의약품 수출은 최근 증가 추세. 멕시코, 유럽 제품이 주도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의 인지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상황

< 코스타리카의 의약품 수입 현황 >

(단위 : 천 달러)

| 순위 | 국가  | 2015년   | 2016년   | 2017년   | 2018년   | 2019년   |
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  | 멕시코 | 59,899  | 57,239  | 72,012  | 64,394  | 64,947  |
| 2  | 독일  | 42,713  | 35,650  | 39,543  | 34,162  | 37,004  |
| 3  | 스페인 | 19,857  | 20,280  | 32,914  | 31,828  | 34,467  |
| 4  | 스위스 | 33,075  | 27,009  | 28,561  | 27,746  | 33,096  |
| 5  | 인도  | 18,318  | 20,087  | 22,034  | 24,035  | 32,568  |
| 42 | 한국  | 645     | 346     | 389     | 494     | 648     |
|    | 총 합 | 520,865 | 521,823 | 550,021 | 523,462 | 530,400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Code 3003, 3004 합산 기준)

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허 유형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3003.10.20./20.20/39.20/40.21/40.22/40.23/40.29/90.12/<br>90.22/90.92                   | 5년 철폐 | 6%    |
| 3003.10.10./20.10/31.00/39.10/40.11/40.12/40.13/40.19/<br>90.11/90.21/90.91             | 즉시 철폐 | 1%    |
| 3004.10.10./20.10/31.00/32.10/39.10/40.11/40.12/40.13/<br>40.19/50.11/90.11/90.21/90.91 | 즉시 철폐 | 6%    |
| 3004.10.20./32.20/40.21/40.22/40.23/40.29/50.20/90.12/<br>90.22/90.92                   | 즉시 철폐 | 6% 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□ 품목 선정 사유

- 의약품은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수출품목 중 상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수출품목
  - 공공 의료부문의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코스타리카 보건부 주도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량구매 입찰 기회가 다수 존재
- 한-중미 FTA 관세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
  - 시장 진입, 공급 확대, 품질검증,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FTA 미양허 제품의 수출 확대로도 이어져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### ○ 한국산 평판

- 한국산 의약품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 품질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인식 제고
-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한국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, 미흡한 사후 대응, 소량오더 등 취약 부분은 개선 필요

### ○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
- 의약품은 관세가 비교적 낮은 품목이 대다수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으나, 한-중미 FTA를 통해 한국산 제품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- 의약품 수요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 특히 정부의 공공 의약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국가 차원의 의약품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수요가 많음.
- 공공 의약품 조달 개선을 위해 조달 및 구매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며, 그 동안 부족했던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### ○ 의약품 등록 관련 현지 보건부에서 우대하는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

\* Country list for high standard of manufacture and control은 코스타리카 복지부의 우대국가 리스트로 동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의료제품 등록 시 절차가 간소화됨.

- 기존 공공 의료 보건시장 내 의약품 정부조달 낙찰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 및 파트너십 구축 등 선제적인 전략 수립도 필요

### ○ 제품의 우수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홍보 활동 강화

- 한국산 제품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이 다소 부족한 상황. 현지 공공·민간 수요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산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.

## 가. 자동차부품 (HS 4011, 4012, 8507.10, 8708)

## □ 시장 환경

- 엘살바도르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4년간 연평균 4%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. 오토바이의 경우 연평균 12%로 증가하고 있으며,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합할 경우 6%의 성장세
  - \* 엘살바도르 인구를 감안할 때 5명 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
- 엘살바도르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안전한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
-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부품 시장 규모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

&lt; 엘살바도르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대수 &gt;

| 구분   | 2016년     | 2017년     | 2018년     | 2019.9월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오토바이 | 210,033   | 250,514   | 297,876   | 330,241   |
| 자동차  | 798,047   | 845,436   | 891,334   | 928,797   |
| 총 합  | 1,008,080 | 1,095,950 | 1,189,210 | 1,259,038 |

\* 자료원 : 엘살바도르 교통부(Viceministro de Transporte)

- 엘살바도르 내 생산시설이 없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

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자동차부품(타이어, 배터리 포함) 수입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. 다만 '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조업 중단, 통행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되며 10월 기준 전년 대비 -20% 감소
  - \* 국가별로는 중국, 멕시코, 일본, 미국, 대만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. 중국산은 꾸준히 수입비중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산 제품은 점점 감소 추세. 이는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엘살바도르 소비자의 성향이 반영

- (對한국) 한국산 자동차부품 對엘살바도르 수출은 '17년까지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한-중미 FTA 정식서명이 완료된 '18년부터 반등하기 시작

#### < 엘살바도르의 자동차부품 수입 현황 >

(단위 : 백만 달러)

| 순위 | 국가 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  | 중국  | 27.6  | 29.1  | 31.1  | 43.4  | 50.0  |
| 2  | 멕시코 | 17.1  | 18.4  | 19.9  | 18.1  | 19.7  |
| 3  | 일본  | 14.6  | 14.5  | 14.0  | 19.0  | 18.3  |
| 4  | 미국  | 27.5  | 28.5  | 28.7  | 15.0  | 16.5  |
| 5  | 대만  | 10.3  | 10.9  | 11.3  | 11.2  | 11.0  |
| 6  | 한국  | 8.5   | 8.3   | 7.4   | 10.8  | 11.0  |
|    | 총 합 | 134.2 | 136.4 | 141.2 | 146.8 | 161.0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4011, 4012, 8507.10, 8708 합산 기준)

#### ○ 품목별 수입 현황

- '19년 기준, 자동차부품(HS 8708)은 중국, 일본, 미국 등 3개국이 61.8%를 차지. 한국은 '18년부터 크게 수출이 증가하며 7% 차지
- 새 타이어(HS 4011)의 경우, 중국(48%), 코스타리카(15%)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. 중고·재생타이어(HS 4012)는 일본(24%), 한국(19%), 미국(18%)산이 압도적

\* 중량 기준으로 신규 타이어가 15,041톤, 중고·재생타이어가 13,073톤이지만 상용제품으로 한정할 때 중고·재생타이어 비중이 매우 높은 편. 이는 중미 전역으로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업자들의 재생타이어 제품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

- 배터리(HS 8507.10)는 멕시코산(61%)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으며 콜롬비아(11%), 한국(8%), 미국(6%)이 경쟁하는 구도

\* 멕시코산 제품은 Rayo, Megaforce, Optima, Superior, LTH, AC Delco 등이며, 배터리의 경우 빠른 배송, 관세 등의 사유로 중남미 국가 선호

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             | 양허 유형   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4011.10.00              | 3년 철폐     | 10%   |
| 4011.20.10              | 3년 철폐     | 5%    |
| 4011.20.90              | 10년 철폐    | 10%   |
| 4012.12.00              | 7년 철폐     | 15%   |
| 4012.20.00              | 3년 철폐     | 15%   |
| 4012.90.10              | 즉시 철폐     | 0%    |
| 8507.10.00              | 즉시 철폐     | 15%   |
| 8708.10.00 ~ 8708.30.10 | 즉시·10년 철폐 | 1%    |
| 8708.30.20              | 즉시 철폐     | 0%    |
| 8708.30.90 ~ 8708.99.00 | 즉시·10년 철폐 | 1% 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신차 뿐 아니라 중고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자동차부품 수요도 동반 성장
  -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늘면서 타이어,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서드파티 자동차부품 수요도 동시에 늘고 있는 상황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자동차부품은 시장 특성상 유사품 수요가 매우 높는데,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바이어들의 공통된 반응
  - 다만, 한국산 제품은 미국, 멕시코, 콜롬비아 등 미주국가에 비해 운송기간이 길어 배터리처럼 생산 직후부터 품질수명이 감소하는 제품의 경우 품질 혹은 가격 등의 보완요소가 필요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배터리 및 타이어는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엘살바도르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미국, 멕시코산 제품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, 한-중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품질 및 마케팅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.
- 더불어 미국, 멕시코 등 주변 수입국 대비 긴 납기일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미주지역 물류센터를 확충하거나, 소량 오더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장 접근 전략도 필요
  - 특히, 엘살바도르는 인구가 650만 명에 불과해 주요 바이어들은 특정 품목을 전문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부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,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조사 보다 다수의 품목을 한번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음.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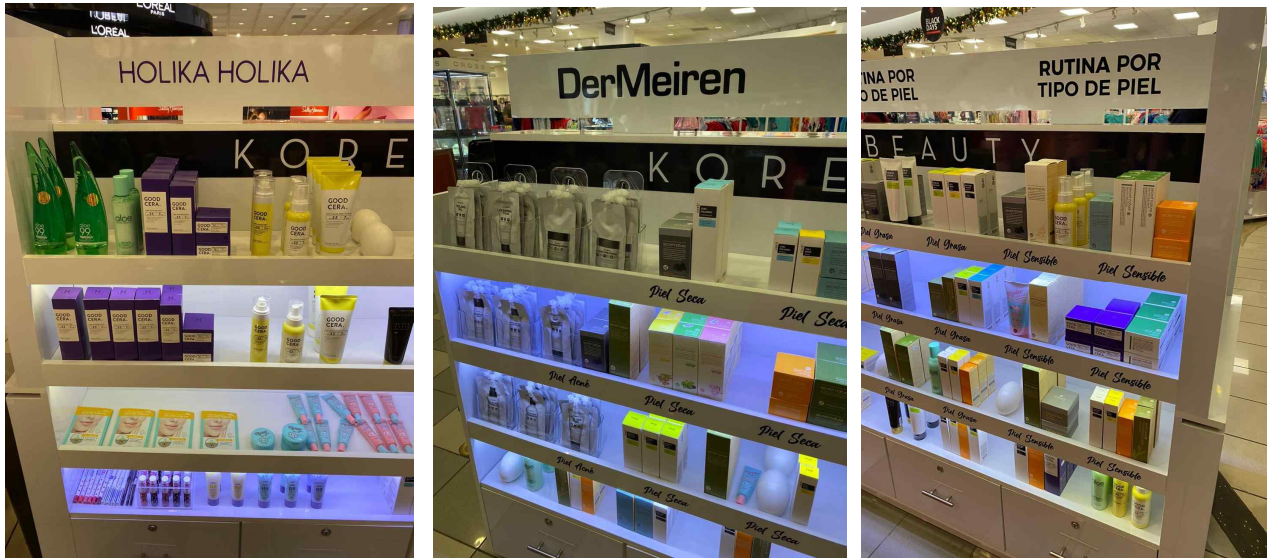
### 나. 화장품 (HS 3304, 3307.90)

---

## □ 시장 환경

- 중미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색조화장품 중심의 소비에서 기초화장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
  - 스킨케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20~40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토너, 에멀전, 클렌징 제품, 마스크팩 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
- 대부분의 대형 유통망은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기 보다 현지 수입상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. 일부 뷰티제품 전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을 갖추고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
  - 한국산 화장품은 초기에는 개인이 소량을 가져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지배적. 최근 고급백화점 체인인 Siman에서 한국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과테말라의 전문 한국 화장품 매장이 엘살바도르에 진출하기도 함.

< 엘살바도르 SIMAN백화점 내 한국 화장품 매장 >



\* 자료원 : KOTRA 과테말라무역관

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'14년 이후 화장품 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음. 멕시코, 미국이 주요 수입 대상국이었으나 콜롬비아가 시장을 점점 확대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역시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

\* 과테말라 Flushing社(색조화장품, 향수)가 제품을 생산하여 역내 시장에 공급 중

- (對한국) '18년부터 기초화장품, 기타화장품 중심으로 對엘살바도르 수출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음.

< 엘살바도르의 화장품 수입 현황 >

(단위 : 천 달러)

| 순위 | 국가   | 2015년  | 2016년  | 2017년  | 2018년  | 2019년  |
|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  | 콜롬비아 | 7,765  | 10,876 | 9,581  | 9,817  | 10,241 |
| 2  | 멕시코  | 10,461 | 10,021 | 9,735  | 10,978 | 9,608  |
| 3  | 미국   | 9,809  | 9,523  | 8,384  | 7,774  | 8,967  |
| 4  | 과테말라 | 3,318  | 3,770  | 5,149  | 3,733  | 4,015  |
| 5  | 프랑스  | 2,298  | 2,194  | 1,886  | 3,203  | 2,922  |
| 18 | 한국   | 92     | 53     | 53     | 202    | 198    |
|    | 총 합  | 42,222 | 45,991 | 44,761 | 46,811 | 48,187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3304, 3307.90 합산 기준)

## 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허 유형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3304.10.00/20.00/30.00/91.00/99.00 | 10년 철폐 | 15%   |
| 3307.90.10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철폐 | 5%    |
| 3307.90.90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철폐 | 15%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중미 소비자들의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K-뷰티에 대한 여성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
  -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뷰티제품 하울, 튜토리얼 영상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, 중미 소비자들에게 K-뷰티도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음.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스킨케어 시장이 발전하는 초기 단계이나 한국산 제품은 가격 대비 좋은 품질, 신선한 패키징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.
  - 엘살바도르 스킨케어 시장은 외국 명품 브랜드(디올, 에스티로더, 클리닉 등) 혹은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(니베아, 폰즈 등)로 양극화 되어 있어 한국산 화장품은 자신에게 더 투자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

## &lt; 엘살바도르의 슈퍼마켓 화장품 코너 &gt;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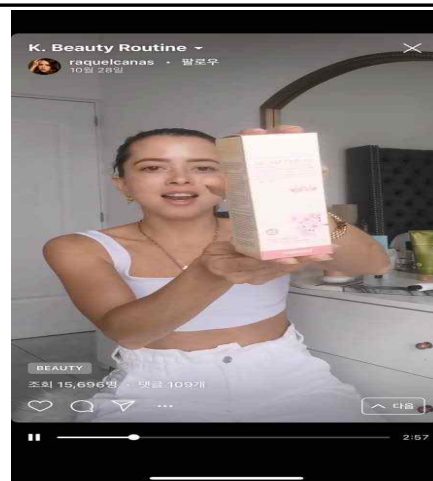
\* 자료원 : KOTRA 과테말라무역관
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단기적인 관세철폐 효과는 미미하지만 동 FTA로 인해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한-중미 FTA에 따른 즉각적인 가격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확산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음.
  - 엘살바도르에서 한국 화장품을 유통 중인 업체는 최근 인플루언서 (Raquel Canas)와 K-뷰티를 주제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진행하며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기도 함.

### < 현지 인플루언서의 한국산 화장품 마케팅 >



\* 자료원 : 인스타그램 (raquelcanas)

- 화장품의 경우 FTA와 별도로 보건등록을 취득해야 하는데, 바이어가 보건등록을 취득하고 있고 경험이 있는 현지 유통망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
  - \* 엘살바도르 정부는 사전통지 없이 보건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변경하기도 하는 관계로 현지 유통망과 밀접한 교류가 필요
  - \*\* 보건등록 필요 서류로 현지 제품 등록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함. 이를 독점권 부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통해 독점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, 다른 바이어도 제품 등록 및 판매가 가능

## 다. 음료수 (HS 2202.90)

### □ 시장 환경

- 중미는 전통적으로 미국산 음료가 장악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의 CBC(The Central America Bottling Corporation)와 멕시코의 FEMSA 제품이 시장에서 주로 유통됨.
  - \* CBC는 과테말라에 본사를 둔 음료회사로 중미지역 Pepsi 제조 및 Pepsi 계열 음료, Ambev(맥주), Beliv(과일음료) 브랜드 제품을 유통
  - \*\* FEMSA는 멕시코 음료회사로 Coca-Cola 제조 및 기타 음료 유통 담당
- 최근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자 알로에·코코넛 등 과일 및 건강음료 위주로 수입시장이 다변화
  - 대형 유통체인에서는 알로에음료 및 다양한 첨가물을 가미한 상품들이 기존 탄산음료 시장에 진출하며 입점에 성공
  - \* Aloe King 브랜드가 알로에음료 중에는 원조이자 프리미엄 제품의 이미지. 최근에는 차를 기반으로 탄산을 가미한 콜롬비아 Hatsu 제품도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.

### < 현지 슈퍼마켓 알로에음료 코너 >



OKF Aloe King



슈퍼마켓 자체 PB 상품

\* 자료원 : KOTRA 과테말라무역관

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최근 5년간 음료 수입은 연평균 8%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. 인접국인 과테말라에서의 수입이 50%를 차지하고 미국, 멕시코, 한국, 코스타리카의 수입이 그 뒤를 차지. 미국산 제품은 '17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
- (對한국) 주요 5개 수입국 중 한국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3%를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음.

### < 엘살바도르의 음료수 수입 현황 >

(단위 : 천 달러)

| 순위 | 국가    | 2015년  | 2016년  | 2017년  | 2018년  | 2019년  |
|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  | 과테말라  | 12,154 | 13,043 | 12,820 | 14,231 | 18,185 |
| 2  | 미국    | 5,959  | 6,119  | 11,840 | 8,790  | 8,674  |
| 3  | 멕시코   | 867    | 912    | 1,149  | 1,315  | 1,836  |
| 4  | 한국    | 544    | 764    | 1,075  | 1,939  | 1,719  |
| 5  | 코스타리카 | 2,405  | 2,259  | 2,024  | 1,744  | 1,307  |
|    | 총 합   | 24,231 | 25,491 | 31,606 | 31,128 | 35,909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2202.99 기준)

### 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| 양허 유형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2202.90.90 | 12년 철폐 | 15%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소득 수준 증가로 인해 식음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. 과거에는 탄산 음료가 시장을 장악했으나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로 건강 및 기능성 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 등에도 다국적 기업의 병입 제조사가 있으나 자체적인 기술 혹은 제조법을 보유한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신제품이 유입되는 구조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### ○ 한국산 평판

-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알로에음료는 이에 대단히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함. 보통 한국산 음료는 알로에음료를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판매를 시작한 비타민음료, 탄산가미음료도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편임.
- 아직 중미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숙취해소음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음.

### ○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
-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동 FTA 전체발효로 인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한국산 제품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임.
  - 중미 주요 유통망은 자체개발상품(PB)의 OEM 생산, 벌크 구입 후 현지 병입 등 단가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으로 우리 기업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
  - 중미는 금융 거래비용이 높아 전신환송금(T/T) 조건이 일상적이나 대규모 유통망은 30~60일 크레딧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신용장(L/C) 거래 등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
- 다수의 한국산 음료가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이 필요
- 최근 코로나19 이후 물류비 상승으로 벤더들의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미 허브 물류센터 운영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.

### 가. 자동차부품(배터리, 타이어 포함) (HS 4011, 4012, 8507.10, 8708)

#### □ 시장 환경

- 온두라스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4년간 연평균 4%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 특히,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가 각광 받으면서 최근 4년간 연평균 12%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음.
- 온두라스는 중미에서도 엘살바도르와 함께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로 손꼽히며 안전한 대중교통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 오토바이, 중고차 등 저렴한 교통수단을 찾는 수요가 높음.

\* '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타살율 엘살바도르 52명, 온두라스 39명(세계은행)

< 온두라스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대수 >

| 구분   | 2016년     | 2017년     | 2018년     | 2019.9월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오토바이 | 453,620   | 483,557   | 550,260   | 648,820   |
| 자동차  | 906,671   | 938,121   | 971,451   | 1,022,813 |
| 총 합  | 1,360,291 | 1,421,678 | 1,521,711 | 1,671,633 |

\* 자료원 : 온두라스 통계청(INE)

##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자동차부품(타이어, 배터리 포함) 수입은 중국, 멕시코, 미국, 일본, 대만 순. 대만은 타이어, 배터리보다는 애프터마켓용 범용제품에 집중되어 있음.
- (對한국) 한국산 제품의 對온두라스 수출은 '17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4~5%대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음.

## &lt; 온두라스의 자동차부품 수입 현황 &gt;

(단위 : 백만 달러)

| 순위 | 국가 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  | 중국  | 40.8  | 47.5  | 50.8  | 59.2  | 63.6  |
| 2  | 멕시코 | 16.9  | 19.1  | 21.5  | 22.4  | 22.9  |
| 3  | 미국  | 22.8  | 21.2  | 21.6  | 21.2  | 20.8  |
| 4  | 일본  | 16.2  | 16.4  | 18.9  | 20.0  | 17.0  |
| 5  | 대만  | 7.9   | 8.3   | 9.0   | 10.2  | 7.9   |
| 6  | 한국  | 7.7   | 7.4   | 6.9   | 7.3   | 7.3   |
|    | 총 합 | 139.9 | 150.9 | 158.2 | 171.5 | 168.2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4011, 4012, 8507.10, 8708 합산 기준)

## ○ 품목별 수입 현황

- '19년 기준, 자동차부품(HS 8708)은 중국, 일본, 미국 등 3개국이 시장의 70%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4%대의 점유율
- 새 타이어(HS 4011)의 경우, 중국(59%)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태국, 코스타리카, 일본 제품이 각각 6~8% 수준. 중고·재생타이어(HS 4012)는 한국(34%), 미국(28%) 제품이 시장을 주도. 3~4년 전에는 일본 제품이 인기가 있었으나 차츰 그 비중이 감소
- \* 중량 기준으로 신규 타이어가 20,865톤, 중고·재생타이어가 12,533톤으로 신규 타이어의 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. 상용제품으로 한정할 때 중고·재생 타이어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중미 전역으로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업자들의 재생타이어 제품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
- 배터리(HS 8507.10)는 멕시코산(66%)이 시장을 독식. 미국산은 13%를 차지하는데 미-중미자유무역협정(CAFTA-DR)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

## 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           | 양허 유형   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4011.10.00            | 즉시 철폐     | 10%   |
| 4011.20.10            | 즉시 철폐     | 5%    |
| 4011.20.90            | 즉시 철폐     | 10%   |
| 4012.12.00            | 5년 철폐     | 15%   |
| 4012.20.00            | 즉시 철폐     | 15%   |
| 4012.90.10            | 즉시 철폐     | 0%    |
| 8507.10.00            | 10년 철폐    | 15%   |
| 8708.10.00~8708.30.10 | 즉시·10년 철폐 | 5%    |
| 8708.30.20            | 즉시 철폐     | 0%    |
| 8708.30.90~8708.99.00 | 즉시·10년 철폐 | 5% 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차량(신차, 중고차) 등록대수의 폭발적 성장으로 자동차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부품 수요 동반 성장
-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늘면서 타이어,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서드파티 자동차부품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한국산 중고차(SUV, 승합차 등)가 시장에 많이 유입되어 있어 한국산 부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편이며 애프터마켓용 부품, 중고 엔진 등 다양한 제품에 관심이 있음.
  - 다만, 한국 제품은 온두라스 시장에는 최소주문수량(MOQ)이 높은 편이라 관심은 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.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동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로 타국가 제품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중미 여러 나라에서 관세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중미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국적 유통망 업체를 활용해 현지기업이 원하는 수량과 국내기업의 최소 구매수량을 조정하는 방안
  - \* Impresa의 경우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 3개국에, Excel Automotriz 및 Cofino Stahl은 중미 5개국에 유통체인 구축
- 주변 수입국(미국, 멕시코 등) 대비 긴 납기일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미주지역 물류센터 운영 고려 필요

## 나. 화장품 (HS 3304, 3307.90)

### □ 시장 환경

- 온두라스 여성 소비자들 주로 색조화장품 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대부분의 대형 유통망은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기 보다는 현지 수입상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, 소량의 고가제품(수입 명품)과 수많은 저가 제품(중미 인근국 혹은 중국산 제품)이 존재
- 세정용품, 샴푸류의 경우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(Industrias Chamer)이 있으나 화장품 제조사는 전무

#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화장품류의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%씩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인근국이자 FTA 체결국인 멕시코, 미국 수입액이 높은 편. 중국 역시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, 제품 물량으로는 멕시코와 중국 제품이 62%를 차지하고 있음.
- (對한국) 한국산 수입은 금액 기준 20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8위를 차지. 최근 5년간 연평균 33% 성장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.

#### < 온두라스의 화장품 수입 현황 >

(단위 : 천 달러)

| 순위 | 국가  | 2015년  | 2016년  | 2017년  | 2018년  | 2019년  |
|----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  | 멕시코 | 17,462 | 17,744 | 17,099 | 17,580 | 17,682 |
| 2  | 미국  | 10,149 | 11,173 | 10,494 | 11,188 | 12,504 |
| 3  | 중국  | 2,060  | 2,591  | 2,956  | 2,963  | 3,383  |
| 4  | 프랑스 | 1,759  | 2,211  | 1,908  | 2,136  | 2,663  |
| 5  | 스페인 | 1,212  | 1,414  | 1,342  | 1,848  | 1,999  |
| 20 | 한국  | 48     | 34     | 150    | 94     | 196    |
|    | 총 합 | 42,349 | 46,562 | 46,025 | 46,665 | 49,906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3304, 3307.90 합산 기준)

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| 양허 유형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3304       | 10년 철폐 | 15%   |
| 3307.90.10 | 10년 철폐 | 5%    |
| 3307.90.90 | 10년 철폐 | 15%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스킨케어에 중미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K-뷰티에 대한 여성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
  -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뷰티제품 하울, 튜토리얼 영상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, 중미 소비자들에게 K-뷰티도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음.
  -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에 확산된 K-뷰티가 온두라스로도 전파 될 것으로 전망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스킨케어 시장 발전 초기 단계이나 한국산 제품은 가격대비 좋은 품질, 신선한 패키징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. 특히 마스크팩은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간주되고 있음.
  - 온두라스에는 아직 스킨케어 전문매장이 없고, 구매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은 해외 방문 시 직접 구매 하거나 직구를 활용. 이외 저가 브랜드(니베아, Garnier 등)나 인근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여성 소비자가 대다수로 이들을 겨냥한 진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단기 관세철폐 효과는 미미하지만 동 FTA로 인해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한-중미 FTA에 따른 즉각적인 가격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보다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확산이 더 중요
- 아직까지 한국 화장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바이어가 없어 인근국 (과테말라, 엘살바도르)에서 소비재를 취급하는 바이어들을 통해 진출하는 것을 고려
  - 온두라스에서도 한국 소비재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으나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본 경험 없이 K-뷰티에 대한 인기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바이어들이 다수
- 온두라스에서 화장품 보건등록을 취득할 경우,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 예정인 바이어가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현지 유통망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
  - \* 온두라스 보건등록청(ARSA)이 관할하며 제품 등록에 대한 위임장, GMP 인증, 전 성분 분석표, 제품 상세정보, 포장 디자인 및 라벨 등 제출 필요

## 4

## 니카라과

## 가. 자동차부품 및 승용차 배터리 (HS 8507.10, 8708)

## □ 시장 환경

-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차량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
- 니카라과 내 제조 및 생산이 전무하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, 멕시코, 일본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.

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자동차부품 및 배터리 수입액은 멕시코(23.0%), 미국(17.9%), 중국(14.2%), 일본(12.7%), 한국(9.3%) 순
  - 배터리(HS 8507.10)는 멕시코(61.0%)산이 시장을 독식 중으로 이어 한국(11.0%), 중국(8.9%), 미국(7.8%) 순
  - 자동차부품(HS 8708)은 미국(22.1%), 일본(18.2%), 중국(16.5%)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
- (對한국) '18년 한국의 對니카라과 자동차부품 및 배터리 수출은 전년 대비 29.6% 감소해 '14년 수준으로 회귀
  - 배터리(HS 8507.10)의 경우 '18년 수입은 전년 대비 21.8% 감소
  - 자동차부품(HS 8708)의 경우 '18년 수입은 전년 대비 15.4% 감소

## &lt; 니카라과의 자동차부품 및 배터리 수입 현황 &gt;

(단위 : 백만 달러)

| 순위 | 국가 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  | 멕시코 | 9.7   | 10.9  | 11.0  | 12.1  | 9.4   |
| 2  | 미국  | 8.4   | 8.4   | 8.0   | 8.1   | 7.3   |
| 3  | 중국  | 5.0   | 6.3   | 6.7   | 7.6   | 5.8   |
| 4  | 일본  | 5.6   | 6.2   | 6.6   | 6.8   | 5.2   |
| 5  | 한국  | 3.9   | 4.4   | 4.4   | 5.4   | 3.8   |
|    | 총 합 | 42.7  | 46.9  | 49.3  | 52.0  | 40.8 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Code 8507.10, 8708 합산 기준)

\* 주 : 2018년 통계가 최신 자료

## 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허 유형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8507.10.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년 철폐 | 15%   |
| 8708.10.00/30.90/40.10/40.20/50.20/50.90/70.00/<br>80.11/80.19/80.20/80.90/91.10/91.20/93.00/94.10/<br>94.20/99.00 | 5년 철폐 | 5% 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중남미 최빈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,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요 지속
- 한-중미 FTA를 통해 가격 경쟁력 개선 시 경쟁국 대비 시장선점 효과 가능성이 큰 시장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한국산 차량 브랜드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부품이 아직 많이 납품되고 있는 관계로 인식 개선과 이미지 제고가 필요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한-중미 FTA를 계기로 중국, 태국 등 여타 아시아 국가 부품과 비교하여 품질 및 사후관리(AS) 측면 개선이 기대됨.
  - 필터류와 중고타이어 등 애프터마켓 부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니카라과의 경우 파나마·코스타리카 등 여타 중미 국가에 비해 아직 성장 단계가 낮은 시장임. 더불어 정치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특성을 사전에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파나마 내 물류기지 등을 이용한 소량 다품종 납품 및 콜론자유무역 지대에서의 재수출 등 중미지역 특성을 활용한 진출전략 수립 필요

## 나. 화장품 (HS 3303, 3304)

### □ 시장 환경

- 니카라과 화장품 및 개인위생 관련 용품 시장 규모는 '18년 기준 약 42백만 달러 규모
- 니카라과는 전통적으로 미국·유럽산 브랜드가 장악한 시장이나, 최근 마스크팩 등 한국산 중저가 브랜드가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
- 색조·메이크업 제품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나, 최근 기초화장품 등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.
  - \*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아시아산에 대한 품질 및 기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K-뷰티 및 한류 등을 통해 한국산 제품 인지도 제고 가능성 다대

#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니카라과는 전통적으로 미국산(6.1%)과 제품과 더불어 주변 멕시코(66%), 과테말라(5.4%) 등 인근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
  - 멕시코, 미국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80%를 차지, 최근 중국산 저가제품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
- (對한국) 한국산 화장품의 對니카라과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나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5년간 약 80배 성장

#### < 니카라과의 화장품 수입 현황 >

(단위 : 천 달러)

| 순위 | 국가   | 2014년  | 2015년  | 2016년  | 2017년  | 2018년  |
|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  | 멕시코  | 29,479 | 29,907 | 31,760 | 31,204 | 28,131 |
| 2  | 미국   | 3,152  | 3,573  | 3,422  | 3,929  | 2,622  |
| 3  | 과테말라 | 3,391  | 3,355  | 3,293  | 2,676  | 2,310  |
| 4  | 프랑스  | 1,725  | 1,833  | 1,383  | 1,841  | 1,401  |
| 5  | 스페인  | 1,303  | 1,330  | 1,542  | 1,400  | 1,379  |
| 28 | 한국   | 0.3    | 2.8    | 17.3   | 19.5   | 23.7   |
|    | 총 합  | 45,160 | 46,053 | 48,736 | 49,557 | 42,717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Code 3303, 3304 합산 기준)

\* 주 : 2018년 통계가 최신 자료

## 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허 유형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3303.00.00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철폐 | 15%   |
| 3304.10.00/20.00/30.00/91.00/99.00 |        |       |
| 3307.90.90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
| 3307.90.10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철폐  | 5% 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꾸준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상류층 중심의 미용·뷰티제품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. 이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대
- 기존 미국·유럽산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중남미 전체적으로 K-뷰티에 주목하고 있어 수입시장이 다변화되는 추세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한국 제품은 당사가 취급하는 마스크팩 이외 아직 없음. 니카라과는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으로, 상류층을 겨냥한 고가시장과 일반적인 저가시장으로 양분하여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음.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한-중미 FTA의 관세 인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제품은 진출 초기 단계이나 중남미 내 K-뷰티 붐과 한류를 연계한 홍보 전략이 동반될 경우 승산이 높을 것으로 예상
  - 니카라과는 빈부격차가 심해 아직까지 중고가 브랜드의 취급은 저조한 편. 저가 브랜드와 더불어 기본적인 세정제(비누, 바디워시, 샴푸 등)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전망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니카라과는 여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로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을 양분하여 접근할 필요
  - \* 고가시장의 경우 미국·유럽산과 견줄 수 있는 고급화된 이미지의 고품질 제품 위주, 저가시장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 체인을 대상으로 입점 가능한 세안제나 저렴한 색조제품 등 기본제품 위주로 공략 필요
- 개별 국가보다 중남미 통합시장 관점에서 접근하여 중남미 국가 대형 유통체인에 입점된 사례 등 인근 국가 진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진출 방안 마련

## 5 | 파나마

### 가.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배터리 (HS 8507.10, 8708)

#### □ 시장 환경

-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자동차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자동차부품 수요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상황
  - 세부 품목으로 필터, 에어컨·브레이크·스티어링 부품, 타이어 등 마모도가 높은 부품의 수요가 꾸준히 존재
- 파나마 내 자동차부품 생산은 전무하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한국산 자동차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부품 수요도 동반 상승 중

\* '20.10월 기준 한국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약 29%로 일본산(52%)에 이어 2위 차지

##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'19년 기준, 자동차부품(HS 8708) 수입 대상국은 미국 (25.7%), 중국(13.5%), 일본(9%)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
  - (배터리) '19년 기준, 파나마의 자동차 배터리(HS 8507.10) 최대 수입 대상국은 한국(33.3%), 미국(25.2%), 멕시코(11.1%)산이 시장을 독식
- (對한국) 최근 5년간 한국산 자동차부품(HS 8708)의 對파나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'19년 기준 시장 점유율 7%를 차지
  - (배터리) 한국은 '16년부터 기존 수입국 1위인 콜롬비아와 2위 미국을 제치고 수입국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

### < 파나마의 자동차부품 수입 현황 >

(단위 : 백만 달러)

| 순위 | 국가 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  | 미국  | 30.2  | 28.5  | 31.3  | 25.7  | 29.1  |
| 2  | 중국  | 11.1  | 11.6  | 13.8  | 11.2  | 15.3  |
| 3  | 일본  | 10.2  | 12.3  | 13.1  | 10.0  | 10.3  |
| 4  | 벨기에 | 5.7   | 9.7   | 8.5   | 6.9   | 14.7  |
| 5  | 한국  | 6.4   | 9.5   | 8.7   | 9.4   | 8.0   |
| 6  | 멕시코 | 8.1   | 8.6   | 6.9   | 7.6   | 9.1   |
|    | 총 합 | 104.4 | 110.9 | 116.8 | 100.4 | 113.2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Code 8708 기준)

### < 파나마의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 현황 >

(단위 : 천 달러)

| 순위 | 국가   | 2015년  | 2016년  | 2017년  | 2018년  | 2019년  |
|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  | 한국   | 3,721  | 4,803  | 9,689  | 7,466  | 8,026  |
| 2  | 미국   | 3,768  | 3,895  | 4,650  | 4,273  | 6,081  |
| 3  | 멕시코  | 3,049  | 3,299  | 5,726  | 4,148  | 2,692  |
| 4  | 터키   | 1,434  | 1,921  | 2,057  | 2,949  | 2,852  |
| 5  | 콜롬비아 | 3,992  | 2,382  | 745    | 934    | 2,634  |
|    | 총 합  | 17,316 | 17,373 | 24,654 | 21,240 | 24,083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8507.10 기준)

### 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 한국)

| HS Cod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허 유형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8507.10.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허 제외  | 15%   |
| 8708.10.00/29.90/30.90/50.90/70.90/93.90/94.90/99.90             | 즉시 철폐  | 5%    |
| 8708.29.10/30.10/40.10/50.10/70.10/80.10/91.20/93.10/94.10/99.10 | 즉시 철폐  | 0%    |
| 8708.80.90/92.10/92.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철폐  | 5%    |
| 8708.91.90/93.33/93.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년 철폐  | 15%   |
| 8708.93.39/95.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년 철폐  | 5%    |
| 8708.40.20/93.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철폐 | 5%    |
| 8708.93.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철폐 | 15%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를 통해 기존 7%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타이어의 경우, 타 부품 대비 10~15%의 비교적 높은 관세로 인해 한-중미 FTA 발효 시 관세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

-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환경과 중산층의 증가는 신차 및 중고차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이어지며 관련 부품 시장도 호조세 유지
  - \* 현지 특성 상 외장부품의 교체·수리가 잦아 관련 부품 애프터마켓 수요도 꾸준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현지 한국산 차량 점유율은 다양한 차종과 가격대로 약 29%대의 점유율 유지
  - 특정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납기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,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시 납기조건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OEM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 후 즉시 판매가 급증하진 않더라도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로 장기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 예상
  - 파나마를 비롯한 중미시장의 자동차부품 시장은 애프터마켓 수요가 항상 존재하므로 한국산 자동차의 애프터마켓용 부품(필터, 베어링, 피스톤 등)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북미-중남미 및 태평양-대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나마의 이점을 살려 물류거점으로 활용. 더불어 제품의 납품기한 단축, 인근국 소량 오더 흡수 등 주변국 연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파생 전략도 모색
- 타이어의 경우, 바이어와 협력을 통해 한-중미 FTA의 관세 인하 효과를 홍보. 중고 타이어 취급 바이어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 등 브랜드 인지도 확산 전략 마련도 필요

## 나. 음료 (HS 2202)

### □ 시장 환경

- 파나마는 미국산 음료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나, 최근 알로에·코코넛 등 과일 및 건강음료 위주로 수입시장이 다변화되는 추세
  - 대형 유통체인을 중심으로 알로에음료와 다양한 첨가물을 가미한 상품들이 기존 탄산음료 시장을 대체하며 입점에 성공하고 있음.

### □ 수입 현황

- (對세계) 파나마 음료 수입시장은 미국 및 중남미 국가가 수입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유럽 및 아시아 등 수입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
  - 최근 한국, 태국, 대만 등 아시아 제품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는 상황
- (對한국) 한국산 수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알로에 음료 등 과일음료 진출기업 증가로 현지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.

#### < 파나마의 음료 수입 현황 >

(단위 : 천 달러)

| 순위 | 국가    | 2015년  | 2016년  | 2017년  | 2018년  | 2019년  |
|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  | 미국    | 24,723 | 28,948 | 29,412 | 24,293 | 27,237 |
| 2  | 엘살바도르 | 21,240 | 19,098 | 18,702 | 18,134 | 17,264 |
| 3  | 코스타리카 | 20,098 | 16,607 | 16,240 | 15,844 | 16,597 |
| 4  | 과테말라  | 8,646  | 10,943 | 12,736 | 13,311 | 12,893 |
| 5  | 오스트리아 | 4,529  | 3,338  | 3,230  | 2,788  | 1,974  |
| 20 | 한국    | 543    | 414    | 416    | 396    | 534    |
|    | 총 합   | 92,915 | 93,515 | 92,713 | 85,764 | 88,697 |

\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(HS Code 2202 기준)

#### ※ 한-중미 FTA 관세양허 현황(對한국)

| HS Code                 | 양허 유형  | 기준 세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2202.90.90              | 16년 철폐 | 10%   |
| 2202.90.90AA 알로에음료로 한정) | 즉시 철폐  | 10%   |

\* 자료원 : 한-중미 FTA 협정문

## □ 품목 선정 사유

- 음료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로 중산층 증가에 따라 식음료 시장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음. 특히, 건강·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음료 위주의 수요 확대 전망

## □ 바이어 인터뷰

- 한국산 평판
  - 이미 파나마에서 한국산 알로에음료가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. 제품 자체와 생산국을 연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.
  - 제로칼로리 알로에제품은 건강에 관심이 높은 현지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반응이 좋음.
- 한-중미 FTA 전체발효로 인한 기대
  - 알로에음료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 경쟁력을 발판으로 신제품 런칭 등 다양한 제품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한-중미 FTA를 통해 중미 현지에 도입되지 않은 신개념 음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
    - \* 알로에·코코넛음료나 비타민C 첨가 등 건강·영양 중심의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음.
  -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중남미 주변국으로 수출 확장에 성공한 수출업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중남미 진출로도 확대될 것

## □ 우리기업의 FTA 활용전략

- 시장 진출을 위한 등록 절차를 철저하게 숙지
  - 식품류의 경우 파나마 보건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함.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 관련 의무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뒤 진출할 필요가 있음.

-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다양화 필요
  - 중국·대만산 알로에음료가 낮은 가격에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신제품 개발 등 제품 다양화 노력이 필요. 더불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되어야 함.
-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고려한 소비자별 맞춤 공략
  - 청량음료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이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
  - 파나마는 중미 내 고소득 국가로 유기농·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SNS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 마케팅 모색
- 파나마 종합박람회(EXPOCOMER) 활용
  - 파나마 최대 박람회로 한국, 대만 등 알로에음료 업체의 참가가 활발함. 중남미 식음료 분야 바이어가 다수 참가하는 만큼 파나마 뿐 아니라 주변국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도 활용 가능

## IV

## 결론 및 시사점

## □ 중미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를 파악하여 중미시장 공략

-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고 있으며, 가성비를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비패턴이 확산
  - 과거에 비해 비대면 구매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.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의 경우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보다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병행도 고려
    - \* 중미 현지에서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홍보가 마케팅 수단으로 부상 중
  - 높은 품질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.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, 더불어 사후관리(AS)용 자동차부품의 수요도 증가 추세
-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지속 확산되고 있는 한류 활용
  - 중미에서도 OTT(넷플릭스 등)를 통해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
    - \* 한류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대다수는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어 중저가형 제품이 유망. SNS 마케팅, 한류 연계 마케팅 행사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마케팅 추진 필요
  - 이에 따라 미국·중국 등을 통한 소량 수입 형태에서 한국 업체와의 직접 거래로 희망하는 바이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. 대형 유통망에 입점하는 한국 브랜드가 속속 생겨나고 있음.
    - \* 최근까지 한국산 화장품은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 SNS 기반 소매 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음. '11년 한국 브랜드가 코스타리카 최대 쇼핑몰에 진출하여 매장을 운영 중

## □ 개별 국가 보다 중미 통합시장의 관점에서 접근

- 중미 전역에 유통망을 구축한 다국적 기업을 활용
  - 중미 각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작지만, 시장 통합 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만큼 중미 여러 나라에 유통망을 구축한 기업을 활용하여 최소주문수량(MOQ) 애로를 극복
  - 스페인어 매뉴얼·라벨 작성, 기술지원 등 구매자 편의 동시 제공 가능

- ▶ (완성차·자동차부품 업체) Excel Automotriz, Cofino Stahl : 중미 5개국
- ▶ (자동차부품 업체) Impresa :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 등
- ▶ (원자재·기계류 업체) Resoco :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과테말라 멕시코 등
- ▶ (식품·에너지 업체) Corporacion Multi Inversionistas : 중미 5개국

- 중미시장 공략을 위해 물류허브인 파나마에 물류거점을 구축
  -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제품보다 납기일이 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, 파나마에 현지 물류센터를 구축해 납기일을 단축하고 소량 주문에 신속히 대응
  - \* 중미 전체 물동량의 55%가 파나마, 18%가 과테말라로 입항. 중미 북부를 타겟으로 하는 물량은 과테말라 보세창구를 활용하여 육상운송 진행 가능

- ▶ 파나마 콜론항發 주요 도시 도로운송 소요시간
  - 산살바도르(엘살바도르) 및 산페드로술라(온두라스) : 48시간
  - 마나구아(니카라과) 및 산호세(코스타리카) : 24시간
- ▶ 과테말라 케찰항發 주요 도시 도로운송 소요시간
  - 산살바도르(엘살바도르) : 8시간
  - 산페드로술라(온두라스) : 15시간

## □ 정부 주도의 다양한 사업기회 참여 확대

-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 수요 지속 존재
  - 한-중미 FTA를 통해 정부조달협정(GPA)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에너지·인프라·건설 분야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
  - \* 중미 유망 프로젝트 : 니카라과 ELCARMEN 수력발전소(3.3억 달러), 파나마 제4송전선 건설(5억 달러)

- 파나마 공공 조달법 개정으로 정부 입찰의 투명성 제고
  - 공공 입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재량 제한, 공공 계약 진행 추이 대국민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 조달법 개정('20.4월)
- 의약품 및 의료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입찰 참여
  - 코스타리카, 파나마의 경우, 의약품 관련 정부 입찰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는 유망한 시장으로 입찰 예정분야를 타겟팅하여 사전에 적극 공략 필요
  - 코로나19 이후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으로 한-중미 FTA를 통한 의약품 관세 인하 효과를 홍보하여 브랜드 제고 기회로 활용

## □ 중미통합체제(SICA) 분야별 사무국 및 산하기관과의 협력

### < 중미통합체제(SICA) 산하 주요기구 >

| 기구(Órganos·8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무국(Secretarías·10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하기관(Instituciones·27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무총국(SG-SICA)<br><u>중미의회(PARLACEN)</u><br>중미사법재판소(CCJ)<br>정상회담기구·부통령기구·<br>각료회의·민간자문위원회<br>등 | <u>경제통합사무국(SIECA)</u><br>사회통합사무국(SISCA)<br>관광통합사무국(SITCA)<br>환경·농업·보건·여성·교육<br>문화·통화·주거 등<br>분과별 사무국 운영 | <u>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</u><br>중기지원센터(CENPROMYPE)<br>중미전력운영소(EOR)<br>중미전력망통합위원회(CRIE)<br>중미전력화위원회(CEAC)<br>통계위원회(CENTROESTAD)<br>등 |

- 교통각료위원회(COMTRAN)의 교통 인프라 개발, 보건각료위원회(COMISCA)의 의약품 공공 구매, 경제통합각료위원회(COMIECO)의 역내 무역원활화 정책 공동 추진 등 사무국별 추진 아젠다와의 협력 방안 강구

▶ 보건각료위원회(COMISCA)의 공동구매제도

- 중미 5개국 공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백신, 항생제 등 기초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종합하여 공급자를 선정하는 공동구매제도 운영
- 역외 기업도 벤더 등록이 가능. 벤더를 대상으로 연간 입찰을 실시해 공급자를 선정하고 개별 국가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
- 연간 4,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며 '19년에는 140여 개의 의약품 입찰

○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회원국 우대정책을 활용해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

- 대다수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의 프로젝트는 회원국·비회원국 구분 없이 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지나 입찰 가격 차이가 15% 이내인 경우 회원국 기업에게 우선 협상 기회를 제공

\* 우리나라는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회원국으로 정식 승인('20.1월)

-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과의 다양한 협력 루트를 활용하여 보건 의료, 에너지, 운송, 기술 및 ICT 등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협력 강화 방안 마련

\* 우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협조 용자, 수출입은행의 전대 금융·온렌딩(on-lending) 대출,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-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상호협약,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(다자 KSP) 등 다양한 협력 체제를 기보유

[끝]

## 작 성 자

- |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|-----|
| ▪ 과테말라무역관 | 안성희 |
| ▪ 파나마무역관  | 이주희 |
| ▪ 통상지원팀   | 이주미 |

Global Market Report 21-005

## 한-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

## 수출 유망품목

발 행 인 | 권평오  
발 행 처 | KOTRA  
발 행 일 | 2021년 3월  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
(06792)  
전 화 | 02-1600-7119(대표)  
홈페이지 | [www.kotra.or.kr](http://www.kotra.or.kr)  
문 의 처 | 통상지원팀  
(02-3460-7513)  
I S B N | 979-11-6490-864-6 (95320)



---

# Global Market Report

---

**kotra**

Korea Trade-Investment  
Promotion Agency